

# 시장 분위기 ‘변수’·커보이는 간극…조상우 ‘긴 겨울’

KIA 내부 FA, ‘마지막 퍼즐’ 조상우 ‘기준’이 관건

“팀에 꼭 필요한 자원, 더디더라도 모두가 만족할 결과 도출”  
‘불펜 보강’ 역할론·아시아쿼터 연계 속도 조절론 사실 무근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내부 FA 6명 중 다섯 명의 거취가 정리된 가운데, 이제 시선은 마지막 남은 조상우에게 향하고 있다.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구단은 안정적으로 조율 절차를 밟아 가고 있다.

KIA 관계자는 지난 7일 통화에서 “조상우 측과 꾸준히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지금은 그 과정을 차분히 풀어나가는 단계”라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별다른 무리 없이 정해진 수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올 겨울 내부 FA 지형과 무관하지 않다.

시즌 종료와 함께 KIA는 내부 FA 6명과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이 가운데 박찬호·한승택·최형우가 각각 두산, kt, 삼성으로 이적했고, 이준영과 양현종은 잔류를 선택했다.

그 과정에서 시장 상황, 우선 순위, 예산 배분 등 여러 요소가 맞물렸고, 조상우 논의 역시 그 연장선에서 진행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스토브리그 후반 팬들의 관심도 그의 거취로 옮겨졌다.

‘셋업맨’ 조상우는 올 시즌 긍정과 불

안이 공존한 한 해였다.

트레이드 1년 만에 FA 자격을 얻은 그는 72경기에 나서 6승 6패 1세이브 28홀드, 평균자책점 3.90을 기록했다. 주로 마무리에 앞서 등판해 상대 흐름을 끊어내는 역할을 맡았으며, 팀 내 두 번째로 많은 경기를 소화했다. 홀드 부문 1위를 기록하며 시즌 내내 필승조의 중심으로 자리했다.

구속과 구위가 다소 떨어지며 기복을 보이기도 했으나 후반기에 다시 안정감을 회복하며 불펜 전체를 지탱했다.

기대만큼 압도적인 투구는 아니었지만, 팀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은 여전히 크다는 평가가 따른다.

구단 또한 그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관계자는 “팀에 꼭 필요한 자원”이라며 재계약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최종 결정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절차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부에서는 아시아쿼터 활용 방향이 관련 논의의 속도와 맞물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당초 KIA가 아시아쿼터를 내야와 불펜 사이에서 검토해 온 만큼, 만약 불펜 보강으로 이어



KIA 타이거즈 내부 FA 마지막 퍼즐 조상우

〈KIA 타이거즈 제공〉

질 경우 조상우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이번 오프시즌 KIA는 이미 2차 드래프트에서 이태양을 영입했고, 박찬호의 보상선수로 흥민

규를 데려오며 불펜에 새 자원을 더한 상태다. 여기에 아시아쿼터까지 불펜 투수가 합류할 경우 조상우의 입지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견해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구단은 해당 관측을 부드럽게 정리했다. 관계자는 “두 사안은 별개다. 서로 얽혀있는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아시아쿼터 선정 과정과 조상우 건은 독립적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시아쿼터 포지션과 관련해선 내야 보강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야쪽 쓰임새가 더 많다”며 “특정 포지션을 고정하기보다는 내야 전반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돌려쓰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내야 자원이 합류할 경우 기존 젊은 내야수들의 부담을 분산시키고, 팀 전체의 운용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아시아쿼터 구상은 조상우 협상에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KIA 내부 FA 논의는 대부분 정리됐고, 조상우 테이블이 마지막으로 남은 상태다. 양측은 속도에 연연하기보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차분하게 간극을 좁혀가는 분위기다.

불펜의 한 축을 맡아온 그의 거취는 내년 팀 전력 구도의 흐름을 가를 변수로 남아 있다. 스토브리그가 후반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제 KIA의 겨울은 외국인 구성이라는 본격적인 과제로 향하고 있다.

조상우의 선택은 그 과정에서 마운드의 짜임새가 얼마나 빨리 정리될지를 가능하게 하는 지점이 될 것이다. 팬들 역시 마지막 남은 FA 조각이 어떤 조건으로 맞춰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홍철기자

## 최정의 반격 ‘승부를 원점으로’

오창원배, 오늘 최종 3국

한국 여자 바둑의 ‘쌍두마차’ 최정(29) 9단과 김은지(18) 9단의 세계대회 우승 경쟁이 최종 국으로 넘어갔다.

최정은 8일 중국 푸젠성 푸저우에서 열린 제 8회 오창원배 세계여자바둑대회 결승 3경기 2국에서 김은지에게 256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뒀다.

두 선수가 1승 1패를 기록한 가운데 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최종 3국에서 우승자가 가려지게 됐다.

이날 최정은 중반 전투에서 김은지의 느슨한 수를 틈타 우세를 잡았다.

/연합뉴스

형세가 불리해진 김은지는 반전을 노렸으나 최정은 정확한 수순으로 끝내기까지 마무리해 승부를 결정지었다.

최정은 대국 후 “엄청 어려운 바둑이었는데 승리할 수 있어 기쁘다”며 “2국을 이겼으니 3국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내용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최정과 김은지는 그동안 국내 대회에서 여섯 차례 결승 3경기를 벌였다. 공고톱게도 6번 모두 2국을 승리한 선수가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두 선수가 처음 맞붙은 세계대회 결승 3경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7일 열린 2025 김천 KOVO컵 유소년 배구대회 초등 고학년 남자부 우승을 차지한 어등초(왼쪽) 선수단과 준우승을 차지한 인천 굴현초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OVO 제공〉

## 어등초, KOVO컵 유소년 배구 초등 고학년 남자부 우승

어등초 김수로 고학년 남자부 MVP·정희정 지도자 최우수지도자상

어등초가 2025 김천 KOVO컵 유소년 배구대회 초등 고학년 남자부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6·7일 경북 김천시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KOVO가 지원하는 전국 유소년 배구 교실 초등학교 42개 팀이 참가했다.

초등 3·4학년 혼성부, 초등 5·6학년 남자부, 초등 5·6학년 여자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예선전을 치른 후 본선 진출팀을 가리고 결선을 통해 각 부문 우승팀을 가렸다.

대회 결과 초등부 중학년(3·4학년 혼성팀)에서는 남양주 별가람초, 고학년(5·6학년)에서는 남자부 어등초와 여자부 김천 금릉초가 우승을 거머쥐었다.

대회 MVP는 중학년에서 김시현(남양주 별가람초), 고학년 남자부 김수로(어등초), 여자부 안민하(김천 금릉초)가 차지했다.

고학년 남자부에 출전한 송정초는 서울 두산초와 공동 3위를 차지했고, 정희정 어등초 지도

자는 최우수지도자에 선정됐다.

KOVO컵 유소년 배구대회는 유소년 배구 클럽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시작해 매년 동·하계에 걸쳐 전국 유소년 선수들이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KOVO 관계자는 “유소년 선수들이 꿈을 키우고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회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한국 배구의 많은 유망주를 발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소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희중기자

## 여수시청·세한대, 제주컵 전국유도 ‘금빛 투혼’

금4, 은5개, 동5…전남 유도 위상 제고

여수시청과 세한대가 올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전남 유도의 위상을 드높였다.

여수시청과 세한대는 최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2025 제주컵 전국유도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5개, 동메달 5개를 획득하는 선전을 펼쳤다.

여수시청은 남자일반부 개인전에서 -81kg급 이광희, -90kg급 김성훈이 금메달, -81kg급 이준찬, -73kg급 심재민, +100kg급 정진형이 은메달, -66kg급 장석진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획득했다.

여수시청은 이어진 단체전에서도 준우승을 기록하며 유도 명가의 자부심을 입증했다.

세한대 남자대학부에서 금 2, 은 1, 동메달 3



2025 제주컵 전국유도대회에서 전남유도 위상을 드높인 여수시청·세한대 선수단

〈전남도체육회 제공〉

개를 획득했다.

-73kg급 조주현, -100kg급 안상민이 금메달, +100kg급 정진우가 은메달, +100kg급 김민준, 이민혁, -81kg급 최성웅은 동메달을 차지했다. 세한대는 단체전에서는 3위를 차지했다.

지난 4월 춘계 대학연맹전과 7월 청풍기 전국대회 단체전 3위, 8월 하계 대학유도연맹전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던 세한대는 마지막 대회에서 3위를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박희중기자



한자리 모인 세 명의 21번

8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25 뉴트리디데이 일구상 시상식’에서 진행된 21번 영구결번 착상식에서 참석자들이 유니폼

을 입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승환, 박철순, 송진우.

/연합뉴스

## ‘끝판왕’ 오승환, 일구대상 ‘화려한 피날레’

2025년을 끝으로 유니폼을 벗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끝판왕’ 오승환(43)이 2025년 ‘뉴트리디데이 일구대상’을 품었다.

오승환은 8일 열린 2025 일구상 시상식에서 영광의 대상을 차지했다.

프로야구 은퇴 선수 모임인 일구회 일구대상에서 마무리 투수가 대상을 받은 건 오승환이 처음이다.

오승환은 “21년간 프로에서 많은 팬께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

하도록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번에 은퇴하면서 불펜 투수의 힘든 점을 많이 이야기했다. 은퇴 과정에서 많이 헤아려주셨다. 이제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시상식에서는 오승환과 박철순(OB 베어스), 송진우(한화 이글스) 프로야구에 영구 결번 21번을 남긴 선수 3명에 대한 착상식도 함께 진행했다.

/연합뉴스